

여성단체 “조주빈 징역 40년, 끝나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징역 40년)가 내려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여성단체들은 조주빈의 1심 선고가 끝이 아니며, 향후 공범 등의 재판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지원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재판부도 쏟아지는 전국민적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를 봤다가 이내 관성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라고 밝혔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조은호 변호사는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있을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

텔레그램성착취 공대위, 조주빈 선고 기자회견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방치... ‘반짝 관심’ 우려” “다운로드 계속 발견...매번 고소장을 내야하나” “피해자물 삭제를 피해자 개인에 맡기지 말라”

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도 “피해자들은 조주빈만이 아니라 공범들, 아직도 잡지 않은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다운로드 받은 가해자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다”며 “그때마다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다시 피해자로서의 법적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가해자들의 증거목록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부소장의 입장은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가 대독했다.

김 부소장은 “피해물에 대한 모든 텍스트, 댓글, 링크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삭제를 빠르게 계속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효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 국민대 활동가는 재판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특징을 이해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활동가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은 여전히 가법게 취급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유포나 소지에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포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 한번 유포된 영상 같은 이미지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손을 떠나 어디로든 떠돌 수 있다”며 “검찰과 재판부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수성과 피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텔레그램 성착취물 피해자 A씨의 발언도 있었다. A씨의 입장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 팀장이 대독했다.

A씨는 “우리는 매일 발전돼가는 디지털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며 “그 안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 처벌에 있어서도 엄벌을 내려주시고, 이런 사회 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랄로’ 천모(28)씨에게는 징역 15년을, ‘도널드푸턴’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태평양’ 이모(16)군은 소년법인 점을 고려해 최대 형량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 징역 8년, 7년을 선고했다. 신봉우기자

차량만 남기고 실종 됐던 60대 남성 숨진채 발견

전남 여수시 율촌면 바닷가에서 차량만 남기고 실종됐던 60대가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여수시와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전 11시 12분께 여수시 율촌면 대어자도 동쪽 해상에서 A(65) 씨가 해상을 수색 중이던 민간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오후 12시 20분께 인양돼 인근 병원에 안치됐다.

해경은 A 씨가 숨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고 흥기살해 엄마, 징역 16년

전남 여수에서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하고 경찰에 자수한 어머니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6일 오후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이모(38·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만 15세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광기와 울분을 보여준 것이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자수한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여수시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타고 있던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흥기로 여러 차례 찢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5시간여 만인 26일 오전 0시40분께 숨진 아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몰고 여수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상습 음주운전 전남 공무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8시 50분께 전남 진도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3km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3차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소방서 전남 최초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운영

순천제일대학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대장이 임명장을 받고 있다.

순천소방서(서장 허수철)는 최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학생 20명과 청암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20명을 “대학생 전문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의용소방대는 명예, 헌신 등 소방정신을 체득하고 미래 의용소방대를 짊어지고 나갈 젊고 활기찬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대학생 전문 의용소방대 출범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청년층 안전문화 확산과 새로운 안전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대학생 의용소방대는 앞으로 평상시에는 화재예방과 소방 홍보활동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펼치고,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보조요원으로 투입되어 젊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패기로 그 임무를 다할 예정이다.

허수철 순천소방서장은 “대학생 의용소방대의 출범으로 천군만마와도 같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며 “젊은 안전지킴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화장품 속에 숨겨...마약 밀수시도 불법체류 태국인 영장

2억원 상당의 아바 6058정 밀반입하려 한 혐의

시가 2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 한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마약류관리예관법률상 밀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태국에서 보낸 2억원 상당의 아바 6058정을 인천공항 국제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바는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태국이나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A씨가 항공 배송을 통해 들여오

려던 아바는 인천세관 단속에 적발됐으며, 세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정음의 한 호텔에서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불법체류 신분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과 함께 마약을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화장품 케이스 속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앞으로도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마약류 판매 및 투약자 등 28명(구속 13명)을 검거하고 마약 거래 대금(3995만원) 등 불법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김만경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